

2020-CR-07

작은연구 좋은서울 20-04

18세 청소년 참정권 참여 경험과 의미

곽미영

곽미영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 케이로드넘버원
kmy0328@naver.com

박종윤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
yuneejang@naver.com

송재화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
hiyan153@hanmail.net

박은주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
pekadel@hanmail.net

‘작은연구, 좋은서울’은 시민 스스로 일상 현장의 문제를 연구하고
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연구원의 연구지원사업입니다.



18세 청소년 참정권 참여 경험과 의미

- 선거참여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연구책임

곽미영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 케이로드넘버원

연구진

박종윤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

송재화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

박은주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차

01 서론	1
1_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 만 18세로 선거권연령 하향 조정	1
2) 연구목적 : 청소년이 참여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1
2_연구방법 및 내용	3
1) 연구방법	3
2) 연구내용	3
02 청소년 정치참여와 현실	5
1_청소년의 정치참여와 효능감	5
2_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과정과 의미	7
1)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과정	7
2) 해외 선거연령 비교	8
3) 만 18세 청소년 선거권의 의미와 현실	11
3_21대 총선 청소년 공약 현황	12
03 연구 결과	15
1_심층 인터뷰 개요	15
2_주요 인터뷰 결과	17
1) 만 18세 청소년의 정치 효능감 : “걱정하지 말아요”	17
2) 학교에서의 정치 참여경험과 교육 : “학교에서도 후보자들은 치열합니다”	18
3) 후보자 결정방법 : “저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21
4) 첫 선거 경험의 소회 : “내가 할 일은 다했습니다.”	22
04 결론 및 제언	23
참고 문헌	25
부록	26

표 목차

[표 2-1] 선거연령 개정	7
[표 2-2] OECD 국가 선거연령	8
[표 2-3] 각국의 선거연령	10
[표 2-4] 21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청소년 공약	12
[표 2-5] 21대 당선자 공약 - 청소년공간 중심	13
[표 2-6] 20대 당선자 공약 - 청소년공간 중심	14
[표 3-1] 연구 참여자 배경	16

그림 목차

[그림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새내기유권자용 교육표지	2
[그림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아카데미 멀티자료	4
[그림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아카데미 멀티자료	6
[그림 3-1] 이로운디자인협동조합 면담이미지	16

01. 서론

1_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만 18세로 선거권연령 하향 조정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선거연령이 만18세로 하향 조정되어, 만 18세 청소년들도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자치단체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선거법 개정 이후 4개월 만인 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만 18세 청소년이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선거 제한 연령기준이 2번 조정되었는데 1960년 4·19혁명 이후 만 21세에서 만 20세로, 2005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조정되었다. (공현, 2020)

OECD 36개 회원국의 선거연령은 16세~18세로 회원국들의 청소년들은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히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민주시민의 권리를 누리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2020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 만 18세 인구수는 총 55만여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고등학교 3학년 연령의 인구수는 9만여 명이지만 선거법에 의해 선거일 기준 4월 16일 이전 출생자에 한해 선거권이 주어지게 된다. (e-대학저널, 2020.10.)

2) 연구목적 : 청소년이 참여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4개월 만에 선거가 시행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청소년 선거교육용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고, 온라인 교육을 준비하였지만 학교 내 모의선거교육의 위법 판정, 코비드-19 감염병 상황으로 학교등교 중지 등 선거교육과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혼란한 가운데 첫 선거에 참여하게 되었다.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청소년 정치의식 성숙도’,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논쟁은 개정 이후에도 이어졌지만 선거 시행 전이라면 쟁점에 대해 다뤄야겠지만 개정된 선거법이 시행이 되었고, 또한 논쟁의 참여자는 당사자가 아닌 성인들이 대부분이므로 이것을 다루는 것은 소모적이며 무의미하다 하겠다. 따라서 고등학생 연령의 청소년이 처음 선거에 참여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번 21대 선거에 참여한 만 18세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경험과 의미를 분석하여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선거참여에 있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그림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새내기유권자용 교육표지

2_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 방법

① 연구 대상

만 18세 청소년 선거연령의 기준은 우리나라 나이 19세~20세에 해당되나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 연령인 청소년이 선거에 처음 참여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경험을 분석하고자 하여 연구대상을 선거에 참여한 고등학교 연령의 19세로 제한하였다.

② 연구 방법

1차로 면접질문지를 작성하고 2차로 1차 면접질문지를 토대로 하여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서술형 기초설문지를 작성 후 작성한 설문지를 토대로 집단면담과 개별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방법은 사례분석의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현실

청소년의 정치참여 경험을 살펴보고 선거연령 하향 과정과 각국의 선거연령 기준을 알아보고, 이번 선거에 나타난 만18세 선거권의 현실을 들여다본다. 또한 당선자 선거공약을 통해 18세 청소년 선거권이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② 선거참여 청소년의 인터뷰 분석

청소년의 첫 선거 경험을 통해 정치효능감, 학교에서의 정치참여경험과 교육, 후보자 결정방법, 선거 경험의 소회 등을 인터뷰하여 청소년의 첫 선거 경험이 어떠하였는지 알아보고 정치참여에 필요한 환경을 분석하였다.

③ 결론 및 시사점

청소년들의 선거 경험을 통해 드러난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과 논의점을 제시하고 청소년

년의 정치참여 방안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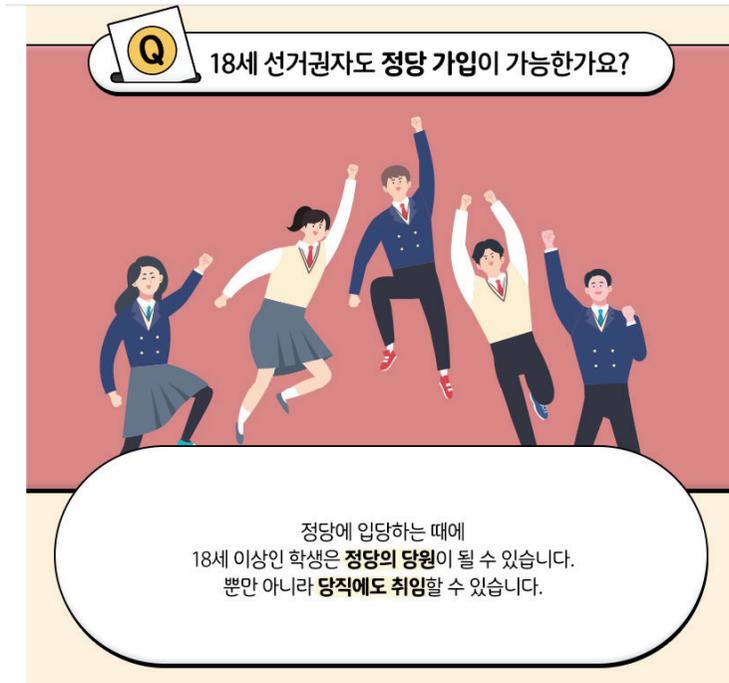
[그림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아카데미 멀티자료

02.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현실

1_청소년의 정치참여와 효능감

청소년의 정치참여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낮설지 않다. 3·1운동, 4·19혁명 때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은 시대의 불합리에 적극적으로 저항했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 촛불집회에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과 행동을 개진하였다. 젠더의식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온라인에 최적화된 세대답게 온라인 소통의 장을 활용하여 스쿨 미투를 용기 있게 고발하기도 하였다. 청소년의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서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했지만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치러지는 선거를 통해 청소년들은 정치를 경험하고 있다. 시·군·구별로 청소년의회를 만들어 시민으로서의 주체성을 가지고 의사결정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청소년의 정치참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른 참여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 미디어 세대인 청소년들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의 해시태그 운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펼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개인의 성장과 정보접근성, 멀티미디어의 발달 등은 현대사회의 청소년들에게 과거와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민주국가에서 참정권은 주권이 있는 국민의 권리로 정치 관심도나 정치의식 성숙도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성숙도나 관심에 따라 주어진다면 선거권이 주어져도 투표하지 않은 성인에 대해서 선거권을 다시 거둬들여야 할 것이다. 선거권이 주어진 성인들의 투표율이 100%에 도달한 일은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정치의식 성숙이나 관심에 따라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정당한 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제공하여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해 권리와 책임을 경험하여 정치 효능감을 키울 필요가 있다. 정치효능감은 개인이 사회 내의 정치과정에서 발휘될 수

있는 권리를 통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개념이다. 즉 정치 효능감은 참여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이 참여하는 운동을 통해서 정치효능감을 경험할 수 있지만 정치과정 내에서 발휘되는 가장 높은 수준은 주권이 있는 국민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선거권이다. 투표를 통해 지지와 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정권을 통해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효능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만 18세 선거권이 도입된 만큼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은 청소년들의 정치효능감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아카데미 멀티자료

2_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과정과 의미

1)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과정

[표 2-1] 선거연령 개정

연 도	사 건	연령 기준
1960	4·19혁명	21세 → 20세
2005	공직선거법 개정	20세 → 19세
2019	10차 개헌	19세 → 18세

우리나라는 4.19 혁명 이후 선거연령을 20세로 규정하여 2004년까지 유지한다.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과정을 살펴보면¹⁾ 1987년 18세 선거연령을 제안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1995년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 등의 단체와 개인들이 선거연령 20세 규정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제출한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대학생유권자위원회에서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을 주장하였다.

2000년 총선 전후 경실련에서 선거연령을 19세로 낮출 것을 포함한 정치개혁법안을 입법청원하였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연대준비위원회 등에서 18세 인하를 주장하는 등 선거를 앞두고 선거연령 인하 주장이 다시 제기되었으나 2002년 전까지는 사회적으로 18세 선거권 도입 운동이 큰 흐름으로 형성되지 못하였다. 1995년 이후 많은 개인 및 단체들이 만 20세 선거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모두 기각 당한다.

2002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18세 선거권 운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한다. 200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낮추자'라는 18세 선거권 운동모임이 만들어져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직접 선거인단을 모집하여 모의투표를 실시하고, 모의투표는 이후 18세 선거권 운동의 주요한 활동 방식이 된다. 2002년 대선 이후 2004년 총선에

1) 서울시NPO센터 [정치] 청소년도 정치해야 한다, 18세로 낮아진 선거권은 누가 만들어냈을까요?
<https://blog.naver.com/snpo2013/222113999902> [18세 선거권 낮추기 운동의 성과에서 인용]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체들에서 18세 선거권 도입의 주장이 나오면서 대통령 인수위에서도 선거연령을 18세나 19세로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 등 정치권에서도 선거연령 인하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한다.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에서 시민단체와 열린우리당이 18세 선거연령을 주장하였지만 협상 끝에 19세로 선거연령이 조정되었다. (공헌, 2020) 2017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결성되고, 청소년 참정권과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을 주요 과제로 한 운동을 시작한다. 그 해 12월에는 참여연대와 연대하여 선거연령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2018년 제10차 개헌안을 통해 2019년 12월 27일 금요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었다. 1987년 18세 연령이 제안된 이후 30년 만에 만 18세 선거권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선거연령의 하향 요청은 청소년 당사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고,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은 주변에 지원단체들이 있었지만 청소년 스스로 이루어낸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해외 선거연령 비교

우리나라는 이번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마지막으로 선거연령을 낮춘 나라가 되었다. 회원국 35개국은 선거연령이 18세이며, 그리스는 17세, 오스트리아는 16세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표 2-2] OECD 국가 선거연령

선거연령	국 가	총 계
16세	오스트리아	1개국
17세	그리스	1개국
18세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 한국, 뉴질랜드, 콜롬비아, 리투아니아	35개국

2007년에 16세로 선거연령을 하향한 오스트리아와 2015년에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춘

일본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세대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이유로 선거연령을 낮추게 되었다.

[표 2-3]의 각 나라 선거연령을 살펴보면 232개국 기준 220개국이 18세 선거연령을, 12개국이 17세 이하로 선거연령을 채택하고 있다.

나라 안에서 이뤄지는 선거에 따라 선거연령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독일은 중앙정부인 선거연령은 18세, 주정부의 선거연령은 16세이며, 노르웨이도 2011년 지방선거에서 16세의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스위스 역시 지방선거에서 선거연령을 16세로 적용하였고, 스코틀랜드는 2014년 독립 여부를 결정하는 선거에서 16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허용하였다. (김효연, 2018)

오스트리아는 16세 선거권이 도입된 이후 2007년 16~17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치적 성숙성에 대한 지표 모두 상위 연령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고, 2009년에 Zeglovits와 Schwarzer의 연구에서 16~17세 청소년의 정치적 성숙성은 선거참여 이후에 성장하였고, 선거연령이 16세 ~17세 청소년의 정치적 성숙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김효연, 2018)

국제사회의 선거연령 기준으로 볼 때 청소년의 선거참여를 통한 정치참여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선거참여는 특정한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인구구조의 변화, 공동체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균형, 선거참여를 통해 우리 삶과 밀접한 정책과 정치에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시한다.

[표 2-3] 각국의 선거연령

선거연령	국 가	총 계
16세	니카라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오스트리아, 쿠바 등	6개국
17세	그리스, 남수단, 동티모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수단, 인도네시아 등	6개국
18세 이상	가나, 가봉, 기아나, 감비아, 과들루프, 과테말라, 괌, 그레나다, 그린란드,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네팔, 노르웨이, 노퍽 섬, 뉴질랜드, 뉴칼레도니아, 니우에, 니제르, 대한민국, 덴마크, 도미니카, 도미니카공화국, 독일, 라오스 라이베리아, 라트비아, 러시아, 레소토, 레위니옹,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르완다, 리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다가스카르, 마르티니크, 마셜 제도, 마요트 섬, 마카오, 마케도니아공화국, 말라위, 말리, 멕시코, 모나코,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 모잠비크, 몬세라트, 몬테네그로, 몰도바, 말레이시아, 몰디브, 몰타, 몽골, 미국, 버진 제도, 미얀마, 마트로네시아, 바누아투, 바베이도스, 바하마, 방글라데시, 버뮤다, 베냉, 베네수엘라, 베트남, 벨기에, 벨라루스, 벨리즈,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볼리비아,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부탄, 북마리아 제도, 불가리아,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산마리노, 상투메 프린시페, 생피에르 미클롱,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세인트 헬레나,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 키츠네비스, 소말리아, 수리남, 스리랑카, 스코틀랜드, 스와질란드,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시리아, 시에라리온, 신트마르턴, 아루바,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이티,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안도라, 알바니아, 알제리, 앙골라, 엔티가바부터, 엘살바도르,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엘살바도르, 영국, 예멘, 오스트레일리아, 온두라스, 요르단, 우간다,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윌리스푸투나제도, 유럽연합,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디아, 일본, 잉글랜드, 에티오피아, 자메이카, 잠비아, 적도기니, 조지아, 중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지브롤터, 짐바브웨, 차드, 체코, 칠레, 카보베르데, 카자흐스탄, 카타르, 캄보디아, 캐나다, 케냐, 케이맨 제도, 코모로, 코소보, 코스타리카, 코크스제도, 코트디부아르, 콜롬비아,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쿡 제도, 쿠라소,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키리바시, 키프로스,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 터크스카이코스 제도, 터키,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투발루,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페로 제도, 페루, 포르투갈, 포클랜드 제도, 폴란드, 푸에르토리코, 프랑스, 프랑스령 기아나,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피지, 핀란드, 필리핀, 핏케언 제도, 헝가리, 홍콩 등	208개국
20세	나우루, 바레인, 타이완(대만), 카메룬 등	4개국
21세	레바논, 사모아, 솔로몬 제도, 싱가포르, 오만, 쿠웨이트, 토켈라우, 통가 등	8개국

3) 만 18세 청소년 선거권의 의미와 현실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고등학생 연령 청소년이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 참여가 가능해졌고, 무엇보다 처음 선거에 참여하여 민주시민의 권리를 인정받고, 행사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선거법에 의한 선거연령 산정 기준으로 4월 16일 이전 출생자에 한해 선거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고등학생 연령의 청소년들 전체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실제로 선거에 참여하는 고등학교 3학년 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한 학급에서 5명 정도에 불과했고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활동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e-대학저널)

기존 만 19세 선거연령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8조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일로 산정 한다’는 선거법에 의해 선거일 기준 출생일 이전에 한해서 선거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20세라 하더라도 선거일 기준 출생 이후라면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만 18세 선거권이 시행되면서 비로소 20세 모두 유권자가 되어 선거권을 부여받게 되었다. 이는 청년들의 정치참여와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정치권에서 청년정책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연령을 하향하면서 국민주권의 중요한 권리인 참정권이 확대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선거연령 산정 기준의 선거법으로 인한 선거참여 확대의 의미는 매우 미미하다. 우리나라에서 연령 사용은 실제 사용 나이와 ‘만’ 나이 2가지를 혼용하여 선거연령 산정 기준의 선거법으로 인해 같은 나이라 하더라도 출생일에 따라 피선거권의 기준이 달라진다. 만 18세 선거권 부여로 청소년의 정치참여의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있었지만 실제로 청소년의 선거권이나 정치참여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이번 선거법 개정이 아니면 국민주권의 권리인 선거권이 일반적으로 성인이라고 인식하는 20세도 참여하기 어려웠다. 선거일에 따라 연령을 산정하는 선거법의 개정이나, 선거연령을 낮추는 논의를 통해 국민의 권리인 참정권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3_21대 총선 청소년 공약 현황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지역 당선자들의 선거공보물을 통해 청소년 대상 공약현황을 살펴보고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공약과 비교하여 만 18세 선거권이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았다.

서울 지역 당선자 49명 모두 아동·청소년, 청년 분야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었고 공약 내용은 교육, 환경 개선, 예산 확대, 시설 확충 및 건립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교육관련 공약은 학습권 보장, 창의교육, 미래교육, 신기술교육, 진로교육, 방과 후 교육지원, 입시제도 등으로 요약되고 두 번째, 환경개선 공약은 교실 냉난방시설, 학교 화장실 개선, 교실 내부 도장, 통학로 확보 등이었다. 세 번째 예산확대는 지역구 내 교육예산 확보였으며 네 번째, 시설 설치 및 건립은 체험교실 구축, 급식실 설치, 체육관 건립, 학교주차장, 청소년센터, 도서관 건립 등이 있다.

[표 2-4] 21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청소년 공약

구분	공약내용
교육	학습권 보장, 창의교육, 미래교육, 신기술교육, 진로교육, 방과 후 교육지원, 입시제도
환경 개선	교실 냉난방 시설, 학교 화장실 개선, 교실 내부 도장, 통학로 확보
예산 확대	교육 관련 추가예산 확보
시설 확충 및 건립	체험교실 구축, 급식실 설치, 체육관 건립, 학교주차장, 청소년센터, 도서관 건립

2016년 20대 서울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공약과 비교했을 때 반복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지만 21대 당선자 중 청소년 공간 중심 공약으로 살펴보면 [표 2-5]에서와 같이 청소년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회관, 청소년일자리 지원센터, 청소년과 청년을 연계하는 청청플라자 등 각각 이름은 다르지만 청소년이 중심이 돼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공약이 총 23건으로 20대 당선자 공약 14건에 비해 9건이 증가했다.

[표 2-5] 21대 당선자 공약 - 청소년공간 중심

연번	선 거 구	의 원	공 약 내 용
1	강남구갑	태구민	○ 청담고 이전부지에 랜드마크인 복합 문화교육 시설 추진
2	강남구병	유경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3	강남구을	박진	○ 산학연계를 통한 청소년 인공지능 센터 건립
4	강동구갑	진선미	○ 고덕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
5	강북구갑	천준호	○ 강북중 교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복합 문화 공간 조성 추진
6	강북구을	박용진	○ 보훈회관 터에 청소년 거점 시립도서관 추진 ○ 삼각산동 아동청소년 예술센터 신설
7	강서구병	한정애	○ 청소년 문화센터 설치(염창동, 화곡6동)
8	강서구을	진성준	○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청청플라자로 교육문화 체육의 거점 마련 ○ 어린이 문화 복합시설과 보육시설 우리동네 키움 센터 확대 조성
9	관악구을	정태호	○ 대학동 청소년 회관 확장 재건축
10	광진구을	고민정	○ 청소년 독서실
11	구로구갑	이인영	○ 청소년·청년무중력 시대
12	노원구을	우원식	○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전국 최대 규모 노원 점프놀이 센터 건립
13	도봉구을	오기형	○ 도봉1동 도봉서원 복원 및 청소년 수련관 건립 ○ 도봉2동 청소년문화의 집 완공 ○ 방학2동 청소년 도서관 건립
14	동작구갑	김병기	○ 청소년 창의 혁신 체험 공간
15	성북구을	기동민	○ 월곡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추진 ○ 석관동 청소년문화예술 시설 건립
16	송파구병	남인순	○ 성동구치소 이적지에 청소년 일자리 시설 설치
17	종로구	이낙연	○ 종로 청소년센터 세검정에 건립 추진
18	중구 성동구을	박성준	○ 약수동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표 2-6] 20대 당선자 공약 - 청소년공간 중심

연번	선 거 구	의 원	공 약 내 용
1	강남구갑	이종구	○ 청소년을 위한 문화 공간
2	강남구을	전현희	○ 청소년 일자리 소호 건립
3	강동구갑	진선미	○ 강동 어린이 회관
4	강동구을	심재권	○ 청소년 복합 문화 공간
5	강서구병	한정애	○ 청소년 문화의 집
6	광진구갑	전해숙	○ 청소년 문화센터
7	노원구병	안철수	○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8	도봉구갑	인재근	○ 청소년 이용시설 건립
9	도봉구을	김선동	○ 청소년 활동진흥원 도봉구 유치
10	동작구을	나경원	○ 청소년 문화 복합 센터
11	서대문구갑	우상호	○ 청소년 문화의 집 확충
12	서대문구을	김영호	○ 어린이회관 건립
13	영등포구갑	김영주	○ 글로벌 청소년 센터
14	은평구을	강병원	○ 청소년 문화 센터 건립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 11조 3항에 의하면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이상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지만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각 읍·면·동에 1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각 동마다 경로당이 있는 것에 반해 청소년 이용공간이 전무한 것은 사실이다. 청소년 관련 공약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선거연령 인하로 인한 영향이 어느 정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유권자의 확대는 공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소년 관련 공약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교육과 교육환경에 관련된 공약은 청소년 삶과 무관하지 않지만 청소년의 의견보다는 절대적 유권자였던 학부모들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의 선거에서 청소년이 유권자로 등장한 만큼 정치인들은 청소년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청소년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제안되기를 기대해 본다.

03. 연구 결과

1_심층인터뷰 개요

- 대 상 : 만 18세로 21대 선거에 참여한 고등학생
- 장 소 : 참여 학생의 학교와 연구책임자 사무실
- 일 시 : 9월~11월에 걸쳐 코비드-19 상황으로 완화단계에서 인터뷰를 실시함.
- 방 법 : 청소년 관련기관과 학교로부터 소개받아 임의 표집으로 진행하였고, 심층면담 시 21명이 참여하였으며, 21명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2명의 일반적이고 평범한 학생의 심층면담을 진행함.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동의서를 받고 면담 시 면담기록과 녹취를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1차, 2차 전사를 하여 정확한 기록을 담고자 하였음.
- 설문내용 : 1차 구글 설문지 통해 기초조사를 하고 기초조사를 토대로 심층면담을 진행함. 설문내용은 부록에 첨부.

고등학교 3학년으로 입시와 취업을 앞두고 있고, 일반고 학생은 기말고사와 수시 입시로 어려움이 있어 면담자 12명 중 11명이 특성화고 학생이었고, 1명이 일반고 학생이었다.

방역은 지침을 준수하며 면담을 진행하였다.

[표 3-1] 연구 참여자 배경

연번	이름	학교유형	학년	성별	참여 활동
1	최O정	특성학교	3학년	여	지역청소년센터 학교 동아리
2	이O윤	일반고	3학년	남	은평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3	나O연	특성학교	3학년	여	학교 동아리
5	노O은	특성학교	3학년	여	학교 동아리
6	이O윤	특성학교	3학년	여	학교 동아리
7	이O준	특성학교	3학년	여	학교 동아리
8	이O슬	특성학교	3학년	여	학생회
9	박O은	특성학교	3학년	여	학교 동아리
10	안O진	특성학교	3학년	여	은평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11	박O민	특성학교	3학년	여	학교 동아리
12	신O진	특성학교	3학년	여	학교 동아리



[그림 3-1] 이로운디자인협동조합 면담이미지

2_주요 인터뷰 결과

1) 만 18세 청소년의 정치 효능감 : “걱정하지 말아요~”

18세 선거권 도입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번 선거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선거 권리에 대해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그러한 권리를 발휘할 능력이 충분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선거연령 하향 시 제기된 쟁점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며 정치적 효능감을 증명하였다.

※ 면담 시 참여자의 의견

나○은 :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노인들이 투표를 많이 하니까 좀 더 젊은 사람들이 투표해야 실제로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참정권 부여에 찬성했어요.

노○은 : 어르신들은 그분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있으니까 좀 편향적으로 보실 수도 있고 몰표가 나올 수 있으나, 젊은 청소년(사회초년생)들은 객관적인 정보를 편향되지 않게 편견 없이 정보를 보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 찬성했습니다.

이○은 : 앞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참정권이 주어지면 좀 더 빨리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박○은 : 만 18세가 참여해서 투표율이 올라갔다고 들었거든요. 참정권을 받아 처음 투표를 해봤는데, 청소년의 선택을 받기위해서 학생들에게 관심 있는 교육 복지 등 공약이 많아져서 좋아질 것 같았어요.

면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18세 청소년에 대한 미성숙함을 편견으로 보고 있으며, 의무교육과정을 이수했고, 자아가 형성되어 충분히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두 번째, 고령화된 사회에서 어른들에 비해 청소년들은 편견 없이 객관적인 정보를 습득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세 번째, 18세 선거권의 도입으로 이른 나이에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긍정적인

경험이며, 그러한 경험들이 신중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네 번째, 18세 선거권은 정치인들이 유권자인 청소년에게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청소년복지나 교육에 관련된 공약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의견들은 오스트리아와 일본이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공동체 의사결정에서 세대 간 균형을 위해 선거연령을 낮춘 배경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스스로 사회변화에 대해 어느 정도 깨닫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선거에 참여하기에 성숙함을 갖추었다는 당사자의 주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선거참여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의견 역시 2009년 Zeglovits와 Schwarzer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

2) 학교에서의 정치 참여경험과 교육 : “학교에서도 후보자들은 치열합니다.”

2018년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고, 학교 내에 민주시민교육의 강화로 참여와 실천중심의 교수학습방법을 강조하였다. 민주시민교육은 지식으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양식으로 체화되는 것으로 경험과 체험학습이 강조되고 있다.(교육부)

청소년 선거권 도입으로 선거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등교가 중지되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의선거교육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면서 선거교육을 할 수 없었다.

선거교육은 민주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민주시민교육으로 볼 수 있고, 앞서 밝힌 민주시민교육이 지식 습득보다는 경험과 실천 중심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참여를 통해 참정권과 정치참여의 경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학교에서의 선거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면담 시 참여자의 의견

이○준 : 참정권을 행사한다는 면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투표를 하니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이○윤 : 투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노○은 : 학교에서 투표할 때도 내 한 표가 후보자들에게 영향을 주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나라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뽑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정 : 저희 학교는 회장·부회장이 세트로 나와서 선거를 해요. 저희 학교는 특성화고라 선거할 때 홍보영상물들이 퀄리티가 높아요. 아쉬운 게 선거 운동할 때 좀 재밌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없어서 아쉬웠어요.

이○슬 : 완전 치열해요. 플래카드 들고 지나가면서 ‘누구 뽑아주세요~’ 하면서 선거운동 해요.

노○은 : ‘치열하다, 하고 싶어 한다. 그런 느낌~’ 특이한 공약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운동장에 잔디를 깔아준다든지, 자판기를 설치해 준다는 등 실현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공약들도 있었어요.

이○윤 : 누구를 뽑아야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나○연 : 인성부터 보고, 소문도 좀 들어보고 학생 구성원들이 선거에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참여하는 선거 경험은 참정권의 중요성과 권리를 행사하는 데 도움을 주며 학교에서의 선거 경험은 선거운동과 같은 선거참여 과정에서 후보자들에게 열정을 느끼고, 흥미롭고,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 면담 시 참여자의 의견

최○정 : 학교에서 하는 선거는 대토론회를 하는데 대토론회가 살벌하고 집중되면서 흥미진진했어요. 토론회를 본 다음 강당에 가서 선거를 해요. 학교선거 경험들이 도움이 되었어요. 학교는 아무래도 사회가 축소된 거라...

신○진 : TV로 후보자들이 연설하는 걸 보고 종이를 들고 투표를 하는데 과거 중학교 학생회장 선거 때 이번 선거와 같이 투표소에 들어가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애들이 너무 신기해하고 재미있어 했었어요. 연설하는

것부터 정말 진지하게 누굴 뽑아야 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그 때 기권표가 적었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참여했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효과가 있구나 생각이 들고,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하던 방식으로 했어요. 고등학교는 교실에서 그냥 하나까 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안○진 : 전 도움이 안 되었어요, 학교에서는 공약이 너무 단편적인데 국회의원 선거와 학교는 아예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앉은 자리에서 동그라미 치고 내는 것보다는 자기가 들어가서 혼자 있는 공간이 있으면 아무렇게나 찍을 수 없게 되는 느낌. 그래서 다 똑같이 할 수 없는데 국회의원 선거랑 비슷하게 하면 관심도 갖게 될 것 같아요.

박○은 : 저도 중학교 때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했던 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교실에서 종이에다 투표하게 되면 진지하다기 보다 설렁설렁 하는데 기표소가 있으면 좀 더 진지해지고 기표함이나 비슷한 곳이라도 만들어서 했으면 합니다.

학교마다 선거과정이 다르지만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할 때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며, 치열하게 토론하는 과정을 보며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 지 스스로 결정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토론회 과정이 없는 경우 친구들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선거 방법에서는 교실에 앉아서 기표하는 것보다 공직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기표소를 설치하고 투표를 할 때 진지하게 임하게 되며 자기결정권이 높아지고 토론회와 공직선거와 유사한 선거 경험은 이번 선거참여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자들은 선거교육에 있어 모두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선거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청소년뿐만 아니라 처음 선거에 참여하는 성인들도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과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공직선거와 같은 설계의 선거과정은 18세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유의미하게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과정 자체가 교육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후보자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것은 정치참여와 정치 효능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후보자 결정방법 : “저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면담자들은 유권자가 되면서 집으로 배송된 공약집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부모에게 물어보았고, 토론회를 찾아보거나 범죄이력, SNS 활동 등을 찾아 보면서 후보자에 대해 탐색하였다. 청소년에 대한 공약이 있는지 찾아보기도 하고, 투표를 결정했던 후보자가 있었지만 토론회를 보고 지지를 철회하고 다른 후보를 투표한 경우도 있었다. 12명의 면담자 중 9명은 후보자를 스스로 결정하였고 3명은 부모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가정환경이 자유롭거나 민주적인 태도의 부모는 면담자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거나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후보자에 대해서 잘 모를 경우 부모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다. 면담자중 1명은 부모를 설득하기도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후보자들의 공약과 공약표현 등이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 면담 시 참여자의 의견

이○윤 : 후보자들의 토론이었어요. 공보물을 확인했고, 18세 참정권 도입 첫 해이기 때문에 청소년 공약이 있을까 살펴봤어요. 몇 분이 있었는데 지역구 후보자들은 2명은 청소년 공약이 있었고, 2명은 없었어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헬로TV 녹화본을 찾아봤어요. 실망한 부분도 있고, ‘말 잘하시네’ 하는 부분도 있고, 토론회를 보고, 원래 투표하려던 후보가 있었는데 지지를 철회하고 다른 후보를 투표했어요, 부모님 앞에서 공약집을 읽었고, 모르는 건 물어보긴 했는데 부모님은 니가 알아서 뽑으라고 하셨어요.

나○연 : 저는 엄마를 설득했어요.

노○은 : 부모님께 물어보기는 했어요. 정확히 잘 모르니까 어떤 당이, 어느 후보가, 어떤 문제가 있나 하고, 그러나 투표는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했어요.

이○준 : 팸플릿 등을 보고 누구를 찍어라 하시고, 결국에 부모님 뜻에 따라 찍었어요, 부모님의 의견에 영향을 받았어요.

박○은 : 성범죄 관련된 그런 분들 피하는 걸 우선으로 했고, 범죄는 어떤 범죄인지 알아보고 공약이 우리 구에 맞을까 제 기준에 적합한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개인범죄, 정보이력을 많이 봤어요.

신○진 : 범죄이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짝 다 외웠어요. SNS 활동을 보고 이런 사람이 있구나. 열심히 하는 사람은 공약을 자세히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SNS를 통

해 그 후보자의 개인 이력 등을 참고했어요. 포스터 공약도 보고, 대외 활동이 나 선거운동 하는 분들 더 많이 봤어요.

4) 첫 선거 경험의 소회 : “내가 할 일은 다했습니다.”

청소년들은 개표과정과 선거결과에 있어서 매우 성숙한 태도를 보였다.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았을 때 개표과정에 관심이 없었지만 자신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했기 때문에 개표뉴스를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지역별로 확연히 다른 정당 색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의문을 갖기도 하였다.

자신들이 투표한 후보자나 정당이 당선될 경우 기뻐하기도 했지만 당선되지 않았어도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면담과정 내내 어느 후보와 정당을 지지했는지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으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의견을 제시하였다.

※ 면담 시 참여자의 의견

안○진 : 그 전에는 안 봤는데 내가 참여해서 봤어요. 제가 투표한 당이 표가 적고 다른 당이 투표율이 올라가면 열 받고 옛날보다 더 열정으로 본 것 같아요 지역별로 정치성향이 있구나 그런 걸 알게 되었어요.

신○진 :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뽑았던 당이 안 되었지만 내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 당이 안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박○민 : 개표방송을 보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원래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밤새도록 보면서 뿌듯했어요. 저희 집안은 정치에 관심이 없거든요.

박○은 : 개표결과 지역별로 당 색깔이 바뀌었을 때,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았어요. 제가 투표한 것도 의미가 있었고, 투표율도 많이 봤어요, 지역별로 당 색이 차이가 있는데 색깔이 갑자기 바뀌었을 때 왜 바뀌었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제가 투표한 결과는 답답했어요, 제가 원하는 당은 안 되었지만 나의 권리와 의무는 다했다라고 생각했어요.

04. 결론 및 제안

본 연구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로 선거연령이 하향된 후 처음으로 고등학생 연령이 선거에 참여하게 되어 18세 청소년 당사자의 선거참여 경험과 의미를 알아보고, 미래유권자를 비롯하여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선거환경에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 번째,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은 인구구조의 변화, 공동체 의사결정에서 세대 간의 균형을 위해 유권자의 확대는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었다.

우리나라의 선거연령 산정기준의 선거법으로 인해 실제로 청소년이 선거에 참여한 정도는 미미하였고 처음으로 청소년이 선거에 참여한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나 진정한 유권자 확대가 되려면 선거연령 산정 기준의 선거법 개정이나 선거연령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

두 번째, 청소년 선거권에 대한 쟁점이 있었으나 선거법 개정에 대해 청소년 당사자는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선거참여에 따라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정치효능감을 보였다. 또한 청소년 참정권과 관련된 오스트리아에서 수행된 연구에서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정치에 대한 관심과 정치성숙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는데 면담과정에서 동일한 의견을 보여 선거연령 하향은 앞으로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세 번째, 학교에서 치러지는 선거 경험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정치참여이자 민주시민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후보자의 토론과정, 공직선거와 유사한 투표과정 설계는 청소년

들에게 모의 선거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거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사회문제를 자신의 비판적 견해로 해석할 수 있는 토론교육 등은 교과와 연계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청소년이 유권자로 등장한 만큼 형식적인 정책보다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청소년이 체감하고 해석 가능한 선거 공약이 나와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 또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며, 정치인들의 행보에 관심을 가지는 유권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감염병 상황과 입시로 인해 시기적 어려움과 사례연구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후속 연구 역시 기성세대의 시각이 아닌, 청소년과 동일한 시각에서 정치참여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효연, 2016, 「아동·청소년의 정치참여와 선거권연령」 헌법연구 헌법이론실무학회 제3권1호 137~163
- 김효연, 2018, 「19세 미만 청소년의 6.13지방선거참여보장 선거권연령하향입법 개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8권1호 199-226
- 공현, 2020, 「18세 선거권, 그리고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의미와 과제」 월간복지동향 258 30-34
- 이상경, 2014 「청소년의 선거연령 18세 인하문제에 관한 소고」 한양법학 25(4)369-396한양법학회
- 이창호, 2020, 「선거법개정에 따른 청소년정책 및 활동지원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허용, 2011,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연구 -선거참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 고선규, 2020, 「일본사례로 보는 학생선거교육의 방향과 과제」 월간 교육정책포럼, 교육정책네트 워크 정보센터
- Zeglovits, F, Schwarzer,S, Lowering voting age in Austria - evaluation of accompanying campaigns for 16-18 year old, Potsdam 2009
- 「2019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20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 청소년용, 20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 「민주시민교육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2018, 민주시민교육과, 교육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s://www.nec.go.kr/site/nec/main.do>
- e-대학저널, 2020.04.10.
<https://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017>
- OECD <http://www.oecd.org/>
- 서울시NPO센터 2020.10.15. [정치] 청소년도 정치해야 한다, 18세로 낮아진 선거권은 누가 만들어냈을까요? <https://blog.naver.com/snpo2013/222113999902>

부록

〈 21대 총선 (20.4.15)에 참여한 청소년 대상 〉

투표 참여 경험 관련 조사서

- 본 조사는 서울 연구원에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된 18세 청소년의 참정권 행사 경험을 조사하여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본 조사는 익명으로 조사되며, 작성해 주신 답변은 청소년 참정권 활성화를 위해 아주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 소중한 시간을 내서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 /케이로드멤버원 -

(1) 일반현황

- 학교 :
- 성별 :
- 나이 :

(2) 18세의 참정권 도입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 찬성 ()

〈 이유 〉

- 반대 ()

〈 이유 〉

(3) 이번 선거참여 과정에서 느끼신 점은?

〈ex〉 : 주권(주인)의식이 생기고 자부심을 느꼈다. / 떨렸다. 등 등

--

(4) 학교에서의 선거 경험이 선거참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ex〉 각종 사회단체 참여, 수요 집회 참여 등 어떤 활동이라도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

(5) 사회참여 및 정치 참여 활동을 하신 게 있나요, 있다면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ex〉 학교 내 토론회 모임이나, 기타 선거와 관련한 활동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

(6) 이번 선거의 참정권(투표 등) 행사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나요?

--

(7) 청소년을 대상으로 참정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필요하다 () * 7-1번 질문으로 가세요.

필요하지 않다 ()

- 이유가 있다면 (간단히) :

(7-1) 참정권 교육이 필요한 이유와 교육 방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육이 필요한 이유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8) 이번 총선에서 후보자를 결정한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었나요?

--

(9) 귀하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10) 18세 청소년이 선거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거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은연구 좋은서울 20-04

18세 청소년 참정권 참여 경험과 의미
- 선거참여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발행인 서왕진

발행일 2020년 12월 23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비매품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이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